

학부제의 배경과 의미

오 인 탁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1. 급속한 변화와 학사 개혁

현대의 가장 큰 발명은 마이크로칩이라고 한다. 이 말처럼 오늘날 국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력과 경제력이다. 그래서 교육도 점점 더 심하게 기능과 효율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는 성장하는 세대가 모두 주체적이고 개성있는 인격인으로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통을 전수하고 현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양하여 공급하는 양적인 문제와, 선진 사회로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고급 기술 인력을 충분히 배양하여 공급하는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더 쏟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개성이 뚜렷하고, 용기와 자신과 배짱이 있는 사람, 창의력과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현재 배출하고 있는 인력은 주로 전인 교육을 받지 못한, 직업 의식과 프로 정신이 결여된 나약한 청년들이다. 또한 기업

◇...지난 '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 중 대학의 학부제 추진 정책은 64개 대학에서 499개 학과가 학부 또는 학과로 통합되는 등 커다란 변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급속한 학부제 추진은 전제조건 미비와 일방적 실시 등으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부제의 도입과 발전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학부제의 배경과 의의를 알아보고, 현재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사례를 살펴봄과, 학부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론과 신중론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학부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은 해당 전문 분야의 기초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과 컴퓨터 사용 능력과 풍부한 상식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배출하고 있는 인력은 기업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21세기에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 현 정부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문적 직업 도야를 중심으로 일반적 인간 도야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산업의 기초 능력과 밀접히 연관된 이론 교육을 받아서 현실의 다양한 산업 조건에 대한 적응력과 현장 감각과 실험 정신을 길러주고 그러한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인격과 교양을 도야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학 능력과 컴퓨터 사용 능력이 세계적인 젊은이들을 양산하지 않으면 국제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염려는 OECD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2000년에는 교육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현실과 엮물려서 우리 고등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대학의 질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적 명령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현실은 개성이 없고 획일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하기 위하여 정부는 통제보다는 자율을, 감독보다는 육성을 행정의 철학으로 내걸고 학부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자율화, 세계화, 다양화, 일류화, 개방화 등을 대학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는 1994년 9월 전국 교무처장 회의에서 학과 통합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1995년 2월에 학과

통합을 위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으며, 전국의 각 대학에 이를 알려서 학부제의 도입과 학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학의 정원 조절을 비롯한 학사 운영의 자율화,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도입, 대학 평가와 연계한 정부의 재정 지원
- 대학 정보 전산망의 세계화, 국제학 그리고 지역학 분야의 전공 특화, 학문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
-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대학원 중심화
- 대학간의 그리고 연구소간의 공동 교육 및 공동 연구의 활성화, 대학의 연구와 교수 시설의 세계화
- 대학 내의 전공 선택·전학·편입학 기회의 확대, 대학간의 학점 인정 교류 및 풀 제도 등의 장려, 학점 은행제·시간별 등록제 등의 도입을 통한 열린 교육 체제

이러한 흐름 아래서 현재 학부제와 계열화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요청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개선 방향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방향으로 학제를 개편한 대학만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늘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대학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의 이러한 '권장'은 대학 지원 정책과 연계된 것이므로, 각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의 안에 따라서 학사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정부가 각 대학에 제시한 학사 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일 년이 채 안 되었다. 그리하여 학부제로의 개혁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

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고충이 많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교육 시장은 이미 금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2000년에는 완전히 개방된다. 이러한 세계적 시장 개방의 물결에 대응하여 정부는 우리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급속한 추진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연세대의 경우에 '21세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사 개혁 작업은 본부와 대학에서 보직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각 학과와 대학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 하였다.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거쳐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교수들은 학부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학부제가 전승되어 내려온 대학의 조직 및 형태와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다르며, 이 차이가 주는 충격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로, 그리고 대학이 특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다른 길'이 거의 막혀버린 것으로 인식되었다.

2. 대학의 두 얼굴

대학은 처음에 사물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순수한 정열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관심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근세로 접어들면서 대학은 순수와 실용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은 실용의 위엄과 선위(先位) 아래서 순수의 가치를 가늠하고 자리를 매기고 있다. 그러자 대학에 말이 많아졌다. 대학은 말이 없었을 때에 더 심오했었다. 말이 있다는 것은 관심과 간섭

이 있다는 말이다. 간섭은 낮은 힘이다. 낮은 힘이 대학을 지배하면 대학의 본질은 변질되게 마련이다. 오늘날 대학은 사회와 너무나 밀착되어 있다. 국가의 관리와 기업의 경영에서 대학이 하고 있는 역할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교육이 하고 있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거의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학은 술한 낮은 힘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간섭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간섭이 지나쳐서 지배가 되든가, 대학이 자존 능력을 상실하고 낮은 힘들의 각축장으로 변하든가 하면, 대학은 연구와 교수와 행정과 봉사의 모든 면에서 변질되고 만다.

우리는 연구실과 교실에서 생산적 오류를 언제나 이미 범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볼 만한 것을 잘 선정하여 표준화된 관광 목록을 만들어놓고, 여행자들을 관광의 세계로 안내하고 틀에 박힌 설명을 늘어놓는, 세련되고 빈틈없는 여행사처럼 되어선 안 된다. 유명한 대학의 연구실과 실험실과 강의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로마나 파리를 관광하는 것들과 그 목록과 구조가 같아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의 구조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더 치욕적인 표현은 없을 것이다.

대학의 교육 내용은 절대적 자유의 분위기 안에서 생동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원칙적으로 생산의 기술을 연마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론과 원리를 탐구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대학의 상아탑적 성격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현대의 산업 사회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질적으로 우수한 상품의 생산과 공급에서 찾고 이를 대학이 주업으로 삼도록 강조하고 있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108조). 제 1 공화국 시대에 제정된 이러한 교육법에는 대학의 두 얼굴이 그려져 있다. 하나는 순수 학문의 연구와 교수이며, 다른 하나는 응용과 산학 협동 활동이다. 전통적 대학은 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순수한 학문 연구와 교수의 정열이 연구실과 강의실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에 20세기에 설립된 대학들이 대부분 산업 관련적이고 직업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두 얼굴은 그러나 전혀 다른 두 얼굴이 아니다. 전자는 대학 외부에서 대학 안으로 불어오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대학이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하여 연구와 교수의 자유와 행정의 자율을 고수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학문과 산업을 선도하여 왔다. 후자는 교육의 실용적 가치에 따라서 전문 직업인의 양성에 주력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와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력을 배출하여 왔다. 이 둘은 대학이 함께 가지고 있는 양면성으로 어느 한 쪽으로만 전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균형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다 더 전통적이거나 보다 더 개방적인 길을 걷는 대학들로 얼굴을 바꾸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은 세 가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개선 또는 개혁의 위협이다. 재학 기간의 제한, 학생 정원수의 동결, 시험과 평가의 엄격한 제도화, 각종 학칙과 규정의 증가, 교무 행정의 중앙 집중화, 연구와 교수의 분리. 이러한 모든 개혁의 경향을 종합하면, 연구 중심에서 교수 중심으로 교수직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

며, ‘개선’이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둘째, 기능화의 위협이다. 소위 학습 기술 자들에 의하여 대학이 전반적으로 통제·관리되고 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미국의 대학 개혁에서 본다. 미국의 대학은 지속적으로 수업과 시험의 표준화·기술화·자동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절음은 프로그램 낙관주의자들에게 오히려 경종으로 작용하였다. 산업에서는 좋은 생산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상품이 쏟아지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교육에서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정치화의 위협이다. 정치화의 위협은 오늘날 대학이 대학의 본질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와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있는 곳에서 늘 확인되고 있다.

대학은 물론 연구와 교수에만 전념하는 폐쇄적인 동굴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는 단지 형식 논리의 후견인이거나 가치와 무관한 지식의 생산자가 아니다. 교수들은 예로부터 주관적 논리를 고집하고 일정한 가치로 웃입은 지식을 생산하면서 회열에 잠겨 온 하는 기인들이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교수들에 의하여 학문은 연구하고 교수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고 창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연구와 교수는 문화 보존의 대학적 형식일 뿐이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하고 가르치는 활동은 문화의 본질적 힘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주업이 국가의 관리와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대학의 주업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옛부터 개체와 특수를 그것 자체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학문의 일원성과 전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 아래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왔다. 대학은 학생들을 학문과 낭만의 조화를 통하여 스스로 사유하고 연구하며, 표현하고 실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서서히 대성하도록 교육하였다. 대학은 여전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즉, 우주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 (이사야 11:9)하도록 하는 교육의 장소이다.

셸스키는 국가를 ‘문화 국가’와 ‘기술 국가’로 분류하였다. 문화 국가는 국가 자체의 통치와 지배를 위하여 학문을 장악하지 않는 국가이다. 문화 국가는 학문이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서 연구되고 교수되도록 연구 기관과 교육 기관에 최대의 자율을 보장한다. 학문은 이러한 자율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사물을 분석하며 사회의 지도 계층을 정신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도야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술 국가는 국가 통치의 차원에서 학문을 관리한다. 그리하여 학문이 집권과 통치에 봉사하고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강요한다.

학문이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향유하려면, 학문은 자아를 자율적인 정치 세력으로 이해하고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 세력으로 현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의 전통적 대학들은 대학의 탄생 초기부터 이러한 자율적 정치 세력으로 자아를 이해하였으며, 그러한 정치적 자율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누려왔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 학문이 정치적 자율 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학문의 정치적 행위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금 정치적 통제와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오늘날 대학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요구와 기대가 지극히 높아지면서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위기는 점점 더 증대되었다. 대학은 학생수의 급속한 증가로부터 오는 밀집 현상을 적절히 소화해내야 한다. 대학은 이 시대가 가져다주는 복잡한 정치경제적·기술공학적·보건의학적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답하여야 한다. 대학은 현대 사회가 가져다주는 의미와 가치와 이념에 대한 물음들과 윤리와 종교의 문제들에 올바른 답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점증은 결국에는 대학을 지나친 부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의 대학에서 우리는 연구와 교수의 분리 현상을, 즉 대학의 영역으로부터 연구의 고삐를 풀어놓는 현상을 보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학의 연구 풍토는 이중적으로 문제시된다. 한편으로 사회는 대학이 점점 더 보다 전문적이고 값비싼 연구들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연구는 정치와 경제의 관심에 의하여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학이 연구의 관심을 펼쳐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연구의 과학적 성격과 의미가 분명히 인정되는 한, 사회적 기대에 역행하는 연구조차도 마음놓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개방적 풍토가 요망된다. 대학의 국가와 사회의 보루 역할을 기대하는 국가는 내적 구성에 있어 대학에게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안에서 의무와 책임으로 연결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대학은 사회를 개혁하는 국가의 기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3. 학부제의 장점과 단점

교육은 밸런스의 예술이다. 안정과 혼돈 사이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예술이다.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과 학생들의 젊은 행동의 간격이 몰아오는 소용돌이 사이에서 발전의 출타기를 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연학은 학생들이 전공학의 백치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학문의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역의 넘나들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수강하기보다, 탐구의 정열과 자아 실현의 의지에 인도되어 수강하도록 대학의 내적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는 그가 아는 것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교수는 그 자신의 고유한 인식을, 연구의 행위 자체를 재생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식을 수집하기만 하지 않고, 창출하는 연구 활동을 직접 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교수는 뛰어난 교수법의 소유자가 아니라, 읽고 쓰며 실험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이어서,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역동적인 학문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교수이다. 성공적인 교수는 유머가 있고 이해심이 깊으며 기대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어서, 학생들을 선취적인 정신으로 사로잡는 교수이다. 이러한 교수를 대학은 처음부터 선별해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하나의 교육의 용광로가 되어서, 연구하고 교수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질을 갖추어가게 되어야 한다. 그래

서 수업의 예술은 철학에 자리잡고 있다. 철학이 있는 교수는 언제나 생동성과 감격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만일 학부제가 철학이 있는 교수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으로 확인된다면, 학부제는 자연스럽게 대학의 기본 구조로 정착할 것이다.

학부제의 장점은 분명하다. 우선 눈에 확 띄는 것으로 학생의 전공 이수 기회가 확대된다. 교수 강의 부담도 줄어든다. 간학문적 연구와 교수도 쉽게 활성화될 수 있다. 교육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중 전공 내지 다중 전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편협한 전공 교육, 적성 발굴과 소질 개발의 기회 부재, 강의 부담의 과다, 교육 시설의 비효율적 사용, 학생의 진로 제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세분화된 대학과 학과와 교과목 같은 종래의 학과 중심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게다가 전공 학점을 줄이고, 전공 필수 과목을 최소화하며, 선택 과목과 교양 과목의 폭을 넓혀서 전공 교육을 폭넓게 할 수 있다. 졸업학점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학점 등록제 같은 경제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며, 유사학과도 통폐합할 수 있다. 산학 협동의 연구와 교수도 용이해진다.

그러나 학부제의 단점 또한 분명하다.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의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수강생이 폭주하는 유명한 강의가 늘어나고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되는 유감스러운 강의가 속출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수들 사이에 전공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교수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단위의 학부제 실시와 계열화는 전문성을 해체하고 학문 자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대학원 중심 대학이 장애에 부딪힐 것이다. 예를 들면 학부에서 학생들이

인기학과로 편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원에서 전공 영역별 학생의 배분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부작용의 문제는 교육 시장 개방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시장의 논리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현재의 단과대학을 경계로 하여 학부제, 계열화, 다중 전공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학부제의 근본 취지 중 하나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 오히려 각 단과대학의 울타리 안으로 지극히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이상적 이중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과 심리학, 교육학과 신학, 이중 전공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전공영역들인 법학과 의학(법의학), 교육학과 심리학과 의학(자폐증, 심리치료, 의료 상담 등), 신학과 의학(의료선교 등), 체육학과 의학(스포츠의학), 의학과 기계공학(의료공학),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의미있는 다중 전공의 세계인 교육학과 생물학, 화학과 신학, 철학과 물리학, 음악과 사회학 등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막혀 있다.

이렇게 각 단과대학의 테두리 안에서 학부제와 계열화를 시도함으로써 유사학과군 내에서만 이중 전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좀더 넓게 보면 이중 전공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학과 경영학, 화학과 생화학, 국문학과 영문학 등의 이중 전공은 마치 사촌끼리 결혼한 근친혼 같아서, 거기서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품종의 개량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한 계열화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학생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보통의 전문 인력은 그런 대로 공급할 수 있겠으나, 뛰어난 또는 비상한 전문 인력은 제대로 공급할 수

없으며, 특출한 인재의 배양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교, 대학, 학과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제나 계열화의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폐쇄적으로 짜고 운영하거나 획일적 대안으로 삼지 말고,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종래의 학과제와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제로 개편한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남아 있는 대학이 모두 한 대학교 안에서 이중 또는 다중 전공의 길로 열려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차이가 계열 또는 학부의 본래적 정신을 축소, 차단, 제한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서강대는 어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공학계열 할 것 없이 전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계열화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이나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고 어떤 영역이나 이중으로 전공할 수 있다.

학부제의 정신을 살리려면 원칙적으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능, 체능의 모든 계열을 하나로 열어놓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학문 중심주의의 요청

여기서 각 대학이 과목 이기주의를 비롯하여 학과, 단과대학, 대학, 부처 이기주의 같은 이기주의에 폭넓게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계열화와 학부제가 단과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학교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법과 대학이나 신과 대학같은 단과대학이나, 대학의 학과 구성이 계열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대학은 교

수와 학생이 함께 학부제 운영의 기본 정신과 효과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억지로' 계열화하거나 고집스럽게 학과 중심 대학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학사 개선 이후의 각 대학의 체제를 상상해 보면, 대학-학부-계열-학과 또는 전공이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모양을 갖게 되었다. 학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학교 전체가 현재의 구성과 조직을 전부 열어놓고, 오직 학문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서 대학을 학부-계열-전공으로 재구성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단과대학과 학과 중심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학생에게 다양한 수강과 전공 선택의 길을 활짝 열어놓든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양자택일의 획일화하는 형식으로가 아니라, 둘을 동시에 하거나 택일하거나 간에 대학의 형편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기주의가 왜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그것은 대학의 학부제 개선이 다분히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하여 교수와 학과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학문의 균형있는 연구와 교수가 심각하게 장애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장애받는 영역은 필연적으로 순수하고 기초적인 영역들이 될 것이다.

대학은 오늘날 학문과 과학의 순수 연구와 기술공학적 목적 연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연구와 교수에 종사할 후학의 양성과 기업과 사회에 유용한 인력의 배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서 대학은 순수를 중심으로 응용을 수

용하고, 연구와 교수를 위하여 봉사의 기능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개혁의 과정에서 연구와 교수와 평가를 중앙 집중화하면서, 집중화하면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른 길은 최소한의 집중화이다. 왜냐하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기술공학, 의학 등은 모두가 다중심적(polyzentrisch)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집중적 구조가 아니라 여러 중심들의 상호교호적이고 개방적인 구조가 연구의 합리적 구조와 과정을 조성하고 결정한다. 다중심적 구조는 단일 중심적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성취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쟁적 연구 풍토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외부적 통제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연구 행위의 보장과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아무런 유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교수권의 보장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질적 제고의 조건이 근거하고 있다.

학부제는 이미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학부제가 의미있게 정착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학부제의 도입으로 대학에서 전공하는 길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떠한 안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학생 지도와 전공 상담을 주로 하는 교수직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학부제의 도입과 함께 졸업 논문 제도를 획일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효과적으로 논문을 지도할 수 없다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방안을 찾아보거나 함께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졸업 논문을 쓰거나 졸업 시험을 치르

거나 하는 다양한 졸업의 길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졸업 학기수의 개념을 탄력있게 운영함으로써, 또는 학년의 개념을 없애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 대학의 구조를 바꿔감으로써 우리는 졸업 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학부제는 이중 전공과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학은 철저한 공부를 위하여 한두 학기 먼저 졸업하는 것보다는 한두 학기 더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고 높이 평가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의 학점 비율을 높여서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 논문만 쓰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전통적인 대학에서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제도이다.

각 학년 수료를 위하여 학점 인정제를 두는 제도를 학기별 최고 학점제와 최저 학점제로 개선할 수 있다. 수백 명의 우수한 보통 인력을 양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탁월한 인재를 교육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나 탁월한 인재나 모두 대학을 빨리 졸업하기보다는 대학의 낭만을 여유있게 누리며 온갖 학문의 성찬을 즐기기를 더 좋아한다. 이는 삶의 질의 성장과 더불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

러므로 조기 졸업이 마치 우수 인재의 증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학제의 개선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수 학점의 비중을 줄여서 집중적 연구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 졸업의 길은 한 귀퉁이에 아주 좁게 열어놓고, 학문의 다양하고 폭넓은 천착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으로, 기초가 탄탄한 젊은 학자로, 꿈이 밤이 되고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사방으로 열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새로운 학제가 학생들이 이기적으로 과목과 전공을 선택하는 물결 속에서 침몰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전공간의 서열화가 심각해져서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는 현상이다. ♣

오인탁/승실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교육학 석사,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독일 튀빙겐 대학 객원교수, 교육철학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현대교육철학』,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 등이 있고, "도덕교육이론에 대한 교육철학적 반성", "교양교육의 역사와 정신", "대학의 이념과 책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